
10월항쟁 정신계승 80주년 행사위원회 제안문

시월이 온다

다시, 시월이 왔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그토록 염원했던 해방은 가짜 해방이었습니다. 일장기가 내려가고 성조기가 올라간 자리에 폭정과 탄압은 여전했고 불평등과 빈곤은 심해졌습니다. "쌀과 일터를 달라", "친일파를 처단하라", "미군정을 철폐하라", 생존과 평등, 민주와 자주를 요구한 우리 민중의 목소리는 짓밟혔습니다. 민심은 폭발했고 민중은 봉기했습니다. 자주적으로 조직된 노동자들의 9월 총파업을 시작으로 민중의 대항쟁 '10월항쟁'은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민중이 세상의 주인임을 천명한 정당하고 정의로운 투쟁, 해방 이후 최초, 최대의 항쟁이 1946년 '10월항쟁'입니다. 오늘 우리는 찬란하고 시린 일흔아홉 번째 시월을 다시 맞이합니다.

대구경북은 자랑스러운 항쟁의 도시입니다.

대구경북은 결코 극우의 본산, 보수의 텃밭이 아닙니다. 10월항쟁, 2.28운동, 4.9인혁열사의 정신이 살아 숨 쉬는 저항의 도시, 항쟁의 뿌리입니다. 독재정권과 야만의 역사는 모진 칼날을 휘둘렀지만 단 한 번도 주저하거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탄압과 폭력 앞에 우리는 단호히 맞서 싸웠습니다. 공포와 협박, 회유와 협작 앞에 호도되고 가려질 뿐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구경북의 시대정신을 돌아보고 다시 조명하겠습니다. 불의에 저항하고 양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대구경북의 진짜 모습을 찾겠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10월항쟁의 진실을 제대로 알려내고 확산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절체절명 민주주의 위기 앞에 우리 시민은 싸웠습니다. 10월항쟁의 역사

와 정신은 나눔과 연대, 다양성과 존중으로 광장에서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불평등과 차별, 분단과 수탈, 혐오와 폭력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2025년 오늘의 위기는 1946년 민중이 마주했던 고통과 다르지 않습니다. 항쟁의 역사를 기억하고 추모하겠습니다. 낙인과 혐오 속에 고통의 날을 보내온 유가족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10월항쟁의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와 인권, 평등과 평화, 자주와 통일, 노동이 꽃피고 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을 위해 실천하고 연대하겠습니다. 그것이 10월항쟁 정신을 오롯이 계승하는 길입니다.

'10월항쟁 정신계승 80주년 행사위원회'를 제안합니다.

2026년 10월항쟁 8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역과 세대, 계급과 계층이 힘을 합쳐 10월항쟁 80주년을 역사적 전환점으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추모와 기념을 물론 10월항쟁의 완전한 명예회복을 이뤄내고 법제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10월항쟁 80주년을 맞이하며 시민의 일상에서, 누구나 참여하고 연대하는 학술, 문화, 대중, 교육사업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10월항쟁 80주년은 오늘의 과제, 미래를 향한 다짐입니다. '10월항쟁 정신계승 80주년 행사위원회'를 10월항쟁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개인과 단체가 힘을 합쳐 구성하고 전국적, 범시민적 10월항쟁 사업을 벌여나가겠습니다.

이제, 시월이 옵니다.

10월항쟁 79주년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후 교육사업, 토론회, 연말모임 등을 진행하며 소통과 의견수렴 과정을 밟아 나가겠습니다. 공감대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 개인과 단체가 폭넓게 참여하는 '10월항쟁 정신계승 80주년 행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0월항쟁 80주년 사업을 대구경북을 넘어서는 전국적 사업으로 만들어 나가고 대구경북의 정체성과 정신을 되찾아 가는 초석으로 삼겠습니다. 10월항쟁 80주년을 모두의 10월항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손 맞잡아 주십시오. 10월항쟁 80주년을 폭넓은 연대와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5년 9월 30일

10월항쟁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정신계승을 위한 시민연대

10월항쟁 79주년 진실규명·정신계승 대구경북시도민대회 참가자 일동